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0.02.17 / (총 2 매)	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
과 장	임 은 정	전 화	044-202-2360
담당자	김 성 경		044-202-2354

한·일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상호협력 다짐

- 한·일 보건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통화(2.17) 실시 -

-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.17(월) 14시 카토 카츠노부(KATO, Katsunobu)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(장관)과 전화통화를 통해,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**양국간의 긴밀한 협력** 방안을 협의하였다.
- 오늘 통화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, 양국 장관은 방역 대책으로 인한 **긴박한 일정을 소화해 내야하는 상황**을 감안, △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(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) 내 한국인에 대한 지원, △코로나19 관련 양국의 현황 및 방역대책 정보 공유, △향후 대책 관련한 협력방안 등 **현안 위주로 논의**하였다.
- 박능후 장관은 크루즈선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당부하고,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**건강하게 귀국**하실 수 있도록 **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력**을 강조하였다.
- 또한, 한국과 일본은 최인접 국가로서 각국의 방역대책이 양국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**양국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**이 **중요함**을 언급하였다.
- 특히, 한국의 진단시약·기법(PCR) 개발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일본측에 제공하고, **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**하였다.

- 이에 대해 카토 후생노동성 대신은 일본 내 감염방지와 크루즈선 관련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, 진단검사 역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, **한·일 전문가 차원의 기술협력의 필요성** 등을 언급하였다.
- 이에 더해 현재 일본 내에 **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례**가 나타나고 있어, 환자 증가 국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**선제적인 대책 마련**이 필요한 상황임을 공유하였다.
- 양국 보건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관련 자국의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과 동시에 **상호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**하였다.
- 박능후 장관은 전화통화를 마치며, “양국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, **한일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**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컸다”고 밝혔다.
- 또한 “현재 마 샤오웨이(MA, Xiaowei)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(장관)에게도 계속 소통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, 조만간 중국 과도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통해 **한중간의 협력 방안**에 대해서도 **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**하고 있다.”고 전했다.